**4월 편의점** – 한서령 에피소드

3월에서 4월로 바뀌었지만 익숙한 학교풍경, 똑같은 건물... 매일 똑같네.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다르지 왜냐면... 공강이 생겼으니까!

생각해보니 점심시간이네 얘.. 점심 먹었으려나? 좀 바쁠거같은 느낌인데...

....

....

....

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소리샘으로...

나는 친구랑 같이 밥 먹고 싶었지만 친구가 바쁜 거 같아서 굳이 다시 걸지는 않았다.

(문자음)

*야 내가 지금 동기들이랑 팀플 준비하고 있어서 조금 바쁘다.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~*(한숨쉬며)하아... 예감이 틀리질 않네... 생각해보니 요즘도 과제하는 애들이 한창이구나 다시 집가기에는 거리도 있고   
**요리하는 것도 귀찮은데... 그냥 혼자 편의점이라도 들릴까? 그냥 적당히 때우던가 해야지.**

공강이 생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는 기분 좋고 여유 있게 편의점으로 들어갔다.

**어서오세요~**

알바생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신상이 나왔나부터 확인했다.   
(찾았다는듯이) 어 저건가? 근데 저 사람은 뭐지? 편의점을 오는데 뭐하러 저렇게 입고온거지? 근데 뭔가 익숙한 실루엣인데 설마....

(한서령인거 알아챔) 그 때 알바했을때 다짜고짜 사귀자고 했던 그 사람 아니야? 진짜 오늘따라 불안한 예감은 죄다 맞네..